

# ‘소혁공’ 시즌2... 꺼져가는 경제 불씨 되살릴까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 바통 이어 받은 ‘2기 경제팀’

3% 성장·최저임금 등 미션 산적 이견 보였던 ‘김앤장’ 반면교사로 ‘원팀’으로 정책 호흡 맞춰 나가야  
홍남기 “의견 수렴하되 정책 통일”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체제가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청간 일관된 목소리를 통한 정책 조율 ▲소득주도 성장 달성을 위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정부의 타임 스케줄이 중반전에서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김앤장’으로 시작한 경제팀이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한채 물러나고, 정권은 3년째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2기 경제팀에게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릴 사실상의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성장률까지 추락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 후보자와 김 실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 ◆정책 일관성·한 목소리 중요하네...

문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책성으로 물러난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결과보다는 ‘입이 맞지 않았다’는 원인에서 찾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킥트롯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을 보좌해 청와대에서 정책을 짜는 정책실장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 8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약속을 나누기도 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부총리보다도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입’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는 풍경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을 동시에, 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교체시기를 빠르게 앞당긴 것도 이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랜기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2기 경제팀을 이끌 ‘홍&김’ 역시 ‘김&장’으로도 불린 전임 1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인식한 듯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 더는 투톱 (불화)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9일 관련 인사를 발표하면서 “일을 만들고 되게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번 인사의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원팀’과 ‘정책 조율능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도 인사 발표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경제팀에 대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표출되면서 지적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되게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과는 “매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시장과 소통·경제성장 제고 어떻게?

청와대는 올해 16.4%, 내년 10.9%(예정) 오를 최저임금을 놓고 언론에서 이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을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라

### 신임 경제부총리·정책실장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1960년 강원 춘천 출생  
춘천고  
한양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쉐퍼드대 대학원 개발경제학 석사

####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1962년 경북 영덕 출생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국무조정실장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 부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
-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 환경부 차관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자료: 청와대

뉴스스 그래픽

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세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포함 이야에 앞둔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이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들지 못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홍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 발표 직후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과 점심을 하고자영업자, 소상공인, 대기업인, 중소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분배를 통한 소득 증가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소득 증가→소비 및 저축 증가→투자 증가→생산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위축→

투자 감소→생산 감소 등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과 불공정경제, 분배의 불균형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경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라면서 “수정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현재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불안 여지가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앞서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3% 성장률’에서 멀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바통을 물려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에 더욱 큰 짐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투자 이어 제조업 동력마저 위축 경제의 뿌리 흔들리고있어” 우려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

폐북에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1일 제조업 가동률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외환위기(1998년) 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부의장은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

로 성장률을 뒷받침해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 수출의 대 중 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 지표와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 봄과 2000년 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실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경기 판단 논쟁이 있었던) 지난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며 “경제 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썼다.

/김승호 기자

## 제주산 굴 200t 北으로... 송이버섯 답례

### 이틀 동안 네차례 나눠 운송

### 靑 “제철 남쪽 과일로 선정”

청와대가 11일 북한에 제주산 굴 200톤(t)을 선물로 보냈다.

지난 9월 ‘2018 남북정상회담평양’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기념으로 북한이 우리측에 보낸 송이버섯(2t) 선물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굴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며 굴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며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굴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수송기를 함께 타고 평양으로 가 북측에 인도한다.

굴은 10kg 상자 2만개에 담아 이날과 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

한 번 운반될 때마다 수송기(C-130) 4대가 함께 움직이며, 이날 오전 떠난 수송기 4대는 오전 10시 평양에 도착하고 오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군 수송기에 제주산 굴을 싣고 있다. 평양으로 보내는 굴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이다.

/뉴스스

후 1시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측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을 지난 추석 선물로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보낸 바 있다. 북한산 송이버섯은 미상봉 이산가족 가운데 나이가 많은 4000여 명을 선정했고, 이들에게 약 500g씩을 보내 추석 전에 받아보도록 했다. 선물에는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말을 함께 담았다.

한편 청와대는 이후 북한산 송이버섯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방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음식재료를

구입할 때와 같이 방사성 유해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대상은 아니었지만 자체 검사를 실시해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검사결과 송이버섯의 방사능 수치는 0.034μsv로서 자연 상태의 일반적 수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한 연간 방사능 허용치는 1000μsv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당시 송이버섯을 인수한 서울공항공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식품검역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